

특별기획

익산 인구증대 발전방향 토론회

인구현황 분석결과 토대 추진전략 대책 발표... 2025년까지 35만명 목표

임피 죽엽·옥서 외성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군산시는 임피면 죽엽마을과 옥서면 외성마을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봄·가을철 건조시기에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각근절을 큰 이미지를 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산불방지를 위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참여도를 높이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여 소각 산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마을단위 서약을 통한 자발적인 소각근절 참여를 유도하여 군산지역 14개 마을 중 소각근절 참여에 기여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포상과 함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남산농공단지 쉼터 정비

익산시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남산농공단지 쉼터를 입주기업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새롭게 정비했다.

남산농공단지에는 1999년도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11개 기업이 입주하여 160여명이 일하고 있다.

시는 올해 5월 총 8,00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 정비 공사를 착공하고 8월 준공했다. 1,190㎡ 규모의 합차에 파고파, 평의자, 스탠드 등을 설치하고, 잔디공원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농공단지 근로자들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조성했다.

시는 앞으로 수시로 제조직업과 쓰레기 수거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보건소, 건강리더 양성교육

군산보건소(소장 진형태)는 28일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통·이당 등 지역사회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민성질환관리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민성질환관리 건강리더 양성교육은 오는 9월 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성질환 자가 관리법, 올바른 식이습관과 신체활동, 뇌졸중·심근경색증 바로알기, 흡연이 심뇌혈관에 미치는 영향 등 주제별 전문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에게는 종합병원 동맥경화 검사, 복부초음파 등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된 건강리더자는 소속된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강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형태 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질병부담이 크고 주요 사망원인으로써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를 위한 소통과 리더십 강화로 각종 보건사업 홍보활동 및 지역사회 건강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옥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 박차

군산시 옥서면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을·면 소재지에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배후 마을을 연결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이다.

옥서면은 올해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실시계획, 2018년에는 건축 및 시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초청 주민교육 및 현장포럼, 주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는 28일 오후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이지영 부시장을 비롯한 시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증대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언으로 나선 김용범 익산시 행정지원과장은 익산시 인구변화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익산시 인구증대 추진전략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 인구감소 요인은 출산율 저하와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유출, 고령화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유출은 출산 가능한 20~30대 인구의 감소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가속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는 2025년까지 인구 35만명을 목표로 실거주자 중심의 전입운동을 추진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다자녀 가정,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의 출산장려와 보육정책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창출 등의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앞으로 인구증대 시책지원 조력을 제정하고, 지역 내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전입촉구, 인구증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익산시 인구 현주소와 인구증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익산시의 인구변화 추세와 인구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익산시의 인구변화는 전북의 인구변화 패턴과 유사하며, 인구규모의 감소도 위협적이지만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익산시 인구변화의 주요 원인은 20대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청년세대의 감소는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출생아수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등의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일본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전담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 패널토론시간에는 김경섭 금강방송 보도제작국장을 좌장으로 임현택 익산시의원, 김용범 익산시 안전행정부국장,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정영미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박

형오 익산시소상공인연합회이사, 김진만 전북일보기자의 지정토론이 열렸다.

인구감소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익산시 인구증대 대책에 대한 평가와 각 분야별로 인구증대 대안에 대한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일회성 전 시정 대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업체, 기관, 시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인구감소 비상상황과 출산율 저하, 인구 고령화의 심각성과 종합대책 마련 필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지영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는 곧 지역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며, 익산시가 호남의 3대 도시의 위상과 명예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지엠 군산공장 · 타타대우상용차 부분파업

장기화 될 경우 협력업체까지 도미노 현상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에 큰 영향

군산의 대표 기업인 한국자본 군산공장과 타타대우상용차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생산 차질은 물론 지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한국자본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진척이 없자 28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6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자본 노조는 생산직 호봉승급금 1만773원을 포함한 기본급 5만8000원 인상과 성과급 2000원 지급, 격려금

4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파업이 중단될 수 있지만 자칫 장기화 될 경우 협력업체에 까지 도미노 현상이 이어질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타타대우상용차 노조도 지난 22일부터 오후 3시 조기퇴근을 통해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측에서 제시한 단체협약 개악안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노조에 ▲복수노조 설립 가능토록 입단협 개정 ▲노조 전입자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의·약단체, 의료 취약지역 의료봉사 '구슬땀'

군산시의·약단체로 이뤄진 의료봉사단(단장 이상규) 회원들이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난 21일 군산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4개 단체와 선천이영춘박사기념사업회 주최로 40여명의 의료인 및 약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편성해 선유도와 무녀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선유도 115명, 무녀도 88명의 주민 및 관광객이 진료를 받았다.

특히 이날 의료봉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당뇨검사를 비롯하여 초음파, 골다공증 검사 장비가 갖추어 환자진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노약자에게는 영양수액을 부여하고 진료료 받은 환자에게는 상비약 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전형태 군산보건소장은 "의약단체와 지역 보건의로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건소 이용과 관련한



지난 21일 군산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 4개 단체와 선천이영춘박사기념사업회 주최로, 40여명의 의료인 및 약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편성해 선유도와 무녀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의약단체는 지난 2004

년부터 매년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 무료진료 및 보건교육 등 의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체납과태료 변호관 영치활동 · 대포차량 단속 강화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경찰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변호관 영치활동과 대포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89억 7000만원으로 지난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체납과태료 징수액은 10억원, 영치 변호관은 721건이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이 갈수록 증가하자 군산경찰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교통순찰차에 '차량번호판 인식 판독기' 1대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차량번호판 인식 판독기 탑재 차량은 카메라를 통해 운행 중이거나 주·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 서버에 저장해있는 과태료 미납차량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적발이 가능하다.

경찰 과태료 체납 영치대상 차량은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부과 차량으로, 소유주가 이를 6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대상차량의 앞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김동봉 군산서장은 "대포·체납 과태료 차량을 적국 단속하여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포·체납 과태료 차량에 대한 단속과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기관장협의회 '익우회' 관내 미등록 경로당 에어컨 기증

익산시 기관장협의회 익우회(회장 익산시장 정현을)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냉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미등록 경로당에 에어컨을 기증하기로 해 주위의 훈훈함을 사고 있다.

익우회에서는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어컨을 기증하기로 뜻을 한데 모았다.

그 첫 번째로 28일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동 서교항 경로당에서 처음으로 에어컨 기증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사랑 실천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에어컨을 기증하기로 뜻을 모아 준 익우회 소속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이 번 지원을 계기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관내 미등록 경로당은 38개소에 달하며, 익우회에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경로당에 에어컨을 기증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기무 농협익산시지부장은 최근 농촌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환으로 "또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농업인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발전하는데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 참가자 모집

군산시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리는 2016 군산3간 여행축제 의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군산항 밤부두 콩쿠르'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로, 군산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명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콩쿠르는 1930년대를 잘 나타내는 복

장과 퍼포먼스 등 근대군산의 이미지를 잘 연출하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특징이 있다.

콩쿠르 참가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참가신청은 8월 24일과 9월 7일, 예심은 8월 28일과 9월 9일 2차례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http://festival.gnsn.go.kr>) 또는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4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햇배' 캐나다·대만 수출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고품질과 안정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익산 햇배가 28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길에 올랐다.

이날 수출된 햇배는 16.2톤으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약 54톤의 배가 수출됐다. 내년 1월까지 500톤을 목표로 수출이 진행된다.

품질별로는 원황 화산, 신품으로 캐나다, 대만으로 수출을 해 1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금마면과 남산면 일대에서 재배되는 익산배는 60개 농가 60ha에서 연간 1,400톤 정도 생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국내육성 신품종 원황 화산 등을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재배해 다품종을 보유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부터 올해까

지 배 국내육성품종보급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비 3억원을 투입하여 원황 화산 등 신품종을 확대보급하고, 수출 맞춤형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익산원형과 연계해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및 철저한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해 수출 상대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성과 위생성' 물질 차단 등을 대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T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배 소비량 내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수출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수출물량을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 전문단지 육성 등의 홍보마케팅, 수출물류비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나만의 꿈터' 공부방 꾸미기사업 '호응'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과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 나만의 꿈터 공부방 꾸미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드림터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주)에이베스틸과 한 화에너지(주) 두 기업이 지역복지사업으로 군산시의 협업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47구에 12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안정된 공부방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화에너지(주)가 공부방이 없는 저소득층 가구에 300만 원을 들여 공부방을 조성하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지역사랑 실천의 바탕으로 뜨거운 폭염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사를 표했다.

/군산=문정곤기자